

## 기획특집

사료값 파동 우려

## Focus

한우가격 진단

## 파워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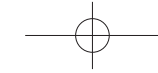
“직불제, 축발기금 확대로 축산업  
기반 조성하겠다.”

민주통합당 간사 김영록 의원

한우가  
사랑다!

한우의 진정한 맛은 보육을 우려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육은 「다들 두었으니」도도 흥내 내기 어렵습니다.  
사람도 보육을 진국이 좋습니다.





## Contents August 2012

- 02~04 기획특집  
사료값 파동 우려
- 05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06~07 Focus  
한우가격 진단
- 08 파워인터뷰  
민주통합당 농해수위 간사 김영록 의원
- 09 Information  
홍보대사 위촉식, 런던 한우서포터즈
- 10~11 Information  
적정사육두수 심포지엄(대전)
- 12~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4 한우전망
- 15 Information  
애독자 코너

# 미국 대가뭄, 국제곡물가 급등 조짐

내년 애그플레이션 우려... 정부, 배합사료가격안정화 초점

미국의 대가뭄으로 인해 곡물생산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의 곡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현재 국내 곡물 비축량은 충분하여 연말까지는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나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외 상황과 그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美, 가뭄에 몸살 앓는 곡물 최대 생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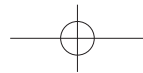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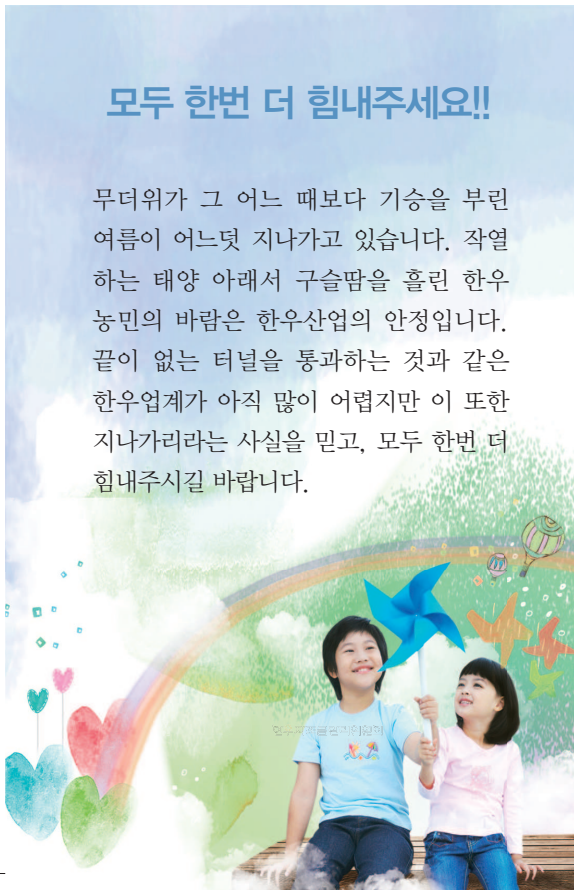
미국의 가뭄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일 미 농무부가 발표한 가뭄 피해지역 현황에 따르면 가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미국 전체 면적의 50.3%에 이르며, 재난 가능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2/3 이상이 포함돼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가뭄은 1956년 이후 가장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옥수수 주생산지인 콘벨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일리노이 주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이 심각한 재난지역에 포함되어 7월 들어 국제곡물가 급등 및 애그플레이션<sup>1)</sup>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 모두 한번 더 힘내주세요!!

무더위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린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구슬땀을 흘린 한우 농민의 바람은 한우산업의 안정입니다.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한우업계가 아직 많이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믿고, 모두 한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1) 애그플레이션 : 농업을 의미하는 영어 'agriculture'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영어인 'inflation'이 합해진 말로,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08년도 애그플레이션 발생 당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5차례에 걸쳐 35%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4천억원 증가했으며 '07년 대비 밀가루 89.6%, 국수 30%인상되는 등 식품가격도 대폭 상승했다.

미국은 주요 곡물인 옥수수, 콩, 밀 등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이번 가뭄에 직격탄을 맞은 콘벨트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25%를 생산하며, 전 세계 수출량의 40% 이상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피해가 지구촌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작황부진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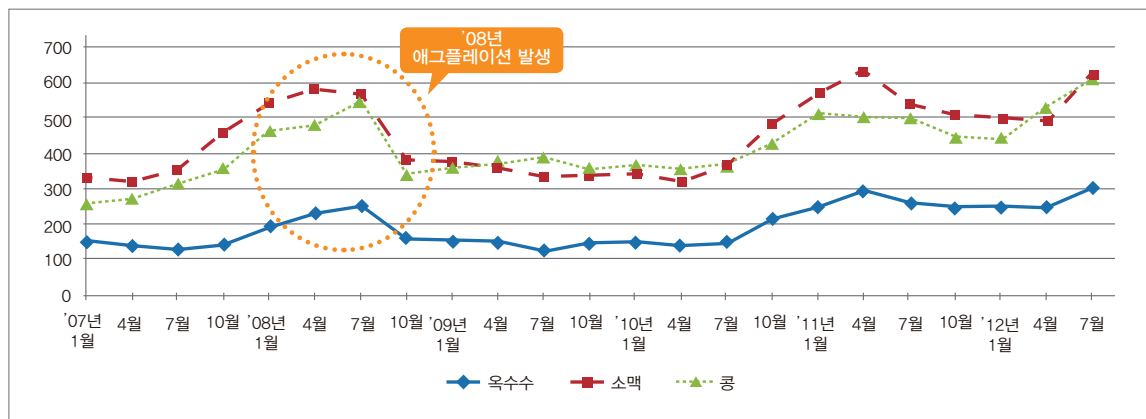


른 식량과 사료 가격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오바마 미대통령은 지난 8일 “많은 농민과 가축업자들이 가뭄으로 인해 곡물과 가축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되었기에 중서부 지역을 지원하고자 3천만달러(3조3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맥생산의 중심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년대비 48%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해 옥수수뿐만 아니라 사료작물의 주요곡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아 축산업계의 사료값 파동이 우려된다.

〈그림〉 국제곡물 가격동향(USDA 고시)

(단위 : US\$/톤)



## 韓, 국제곡물가 급등 대응책 추진 계획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에는 물가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의 가격 상승은 상당기간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업계 및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해 논의하고자 장관 주재로 지난 7월 25일 축산단체와 곡물관련 기관 등 각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업계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용할 곡물은 대부분 확보한 상태로 올 하반기까지는 국내 영향이 작을 것으로 전망하나 국제곡물가 변동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약 4~7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내년 초부터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긴급 업계간담회 개최 후 지난 2일



이에 정부는 이를 위해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초 3,2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축산농가에 한시적으로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사료업체에는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사료용 수입곡물을 대체하기 위해 조사료의 수입쿼터를 늘리고(현행 80만톤 → 확대 100만톤), 축산농가가 군부대의 조사료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벼짚의 수거와 활용을 늘리고 조사료 재배면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국내 식용콩 재고 보유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는 해외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과 유통시설 등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선물과 콜옵션 등 금융시장을 활용해 수입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림〉 주요 대책별 조치 계획

| 구분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부처     |
|-----------------|--------------------------------------------|----------|----------|
| 축산농가·사료업체 부담 완화 | 축산농가 한시적 사료구매자금 지원                         | '13년 상반기 | 농식품부/기재부 |
|                 | 사료업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 '13년 상반기 | 농식품부/기재부 |
| 조사료생산 및 급여확대    | 조사료 수입쿼터 확대                                | '12년 하반기 | 기획재정부    |
|                 | 군부대 내 조사료 자원 축산농가 공급                       | '12년 8월  | 국방부      |
|                 | 벼짚 20만톤 추가 수거활용지원                          | '13년 상반기 | 농식품부/기재부 |
|                 | 조사료 동계재배 면적 확대<br>('11: 175천ha → '12: 219) | '12년 10월 | 농식품부     |

## 식량안보 절실, 안정화 방안 모색해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옥수수 수입량 1, 2위를 다툰 정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써 이번 미국 가뭄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는 비축량도 아직 충분하고 4~7개월이 지난 후 국내에 여파를 끼치므로 아직은 안정세다. 하지만 향후 곡물수급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며 환율도 '11년 평균환율 1,108원에서 올해 7월 평균 1,143원으로 대폭 상승되어 가격인상요인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료가격안정화를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조성을 포함한 FTA특별법이 예산상의 문제로 계류 중에 있어 지금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축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는 축산업자의 현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며 “한시가 급한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FTA특별법 등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하루빨리 법안통과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의 피해가 생산자만으로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식탁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가는 암소축하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안정적인 생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제 11회 한우인의 날’ 충북 충주에서 개최

### 국민과 함께하는 오천년 숨결의 민족한우



전국한우협회와 충북도지회, 충주시지부가 협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및 제 11회 한우인의 날을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시 탄금대 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오천년 숨결의 민족한우”를 주제로 이번 한우인의 날을 계기로 어려운 한우산업을 타개하고자 한우인들의 강한 의지와 결집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한우인들과 한우산업 종사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의 장인 기자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20일 기념식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축하공연 및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한우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한우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한우인의 날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025251053@hanmail.net)이나 팩스(02-525-1054)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한우인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한우협회 회원과 한우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한우산업 발전위한 분야별 T/F팀 운영

### 한우산업 문제점과 농가애로사항 파악, 실질적 제도 개선 기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T/F팀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전국한우협회는 2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생산·개량, 정책·제도, 소비·유통, 질병·방역 분야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T/F팀은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고 2013년까지 1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생산·개량 T/F팀은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및 환경, 가축개량, 사료 및 조사료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정책·제도개선 T/F팀은 한우정책 평가 및 신규정책 개발, 등급판정, 축산법과 기타 제도 개선 등 한우정책 및 예산,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소비·유통 T/F팀은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해 할인행사 방안과 적정소비량 조사 및 홍보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질병·방역 T/F팀은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방역 홍보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가축  
시장

## 암송아지 거래 부진, 입식의욕 떨어져

영세 번식 농가만 사육포기, 한우 사육두수 여전



시세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14일 기준, 전국 가축시장의 암송아지(6~7개월령)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100만원 미만이 대다수이며, 일부지역에서는 거래가격이 6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암송아지의 경우 대규모 유찰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거래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농가의 암송아지 입식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감축정책에 따른 송아지 안정제의 폐지가 암송아지 가격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임용현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최근 가축시장은 암송아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세를 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송아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부업농가 사이에서 한우사육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심리가 널리 퍼져 많은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 향후 송아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한우산업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번식우 농가(4두 사육)는 “지금 상황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금 소를 처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50만원에도 소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울며겨자먹기의 심정으로 소를 계속 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식 한우협회 파주시지부장은 현 상황에 대해 한우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우산업의 위기는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암송아지나 암소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이 사육하던 것이다. 이들 입장에서 한우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굳이 소를 키우면서 산업을 지켜야 할 사명감은 없다. 하지만 이들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한다고 한우사육두수가 줄어들지 않아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한우산업의 어려움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8월 암송아지(6~7개월령) 가축시장 거래현황

(단위:원, 두)

| 일자   | 평균가격      | 출장두수 | 거래두수 | 유찰두수 |
|------|-----------|------|------|------|
| 8.1  | 987,500   | 79   | 24   | 55   |
| 8.5  | 1,126,441 | 169  | 59   | 110  |
| 8.7  | 970,469   | 385  | 239  | 146  |
| 8.10 | 966,931   | 993  | 750  | 243  |

※자료: 농협중앙회

도매  
시장

# 암소출하량 증가 현상 뚜렷, 저등급 암소 수요처 확보 어려워, 고급육만 안정적



정부의 한우감축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매시장 한우출하량 가운데 암소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암소의 출하량은 5월 부터 거세우를 앞질렀다.

이 같은 암소 출하량 증가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암소도태장려금 신청 농가들이 아직 상당수 출하를 하지 않았고, 한우산업의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가들이 번식보다는 비육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암소 출하량의 증가로 인해 한우의 평균 등급 출현율은 크게 하락했다. 경락가격에서도 나타나듯이 암소의 비육성적은 신통치 못하다. 다만 드문 경우라도 암소의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그나마 거세우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창석 부천공판장 경매팀장은 “암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번식용으로 사육하다가 수명을 다해 비육 출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질등급이 거세우에 비해 낮게 나온다. 다만 유통시장에서도 암소 고급육에 대한 별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등급 이상을 받으면 거세우 못지않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암소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를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우는 거세 고급육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갑자기 암소의 출하량이 증가해 적절한 수요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소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만 늘어나 농가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의 시세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육의 경우 안정적 시세를 유지하면서 선방하고 있다. 8월 한우거세우의 평균 시세는 1++등급의 경우 kg당 17,500원, 1+등급은 15,723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한때 2만원을 호가하던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어느정도 시세는 유지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8월(1~10일) 거세우  
육질등급별 평균 경락가격 (단위 : 원/kg)

|     |        |
|-----|--------|
| 1++ | 17,509 |
| 1+  | 15,723 |
| 1   | 13,730 |
| 2   | 11,300 |
| 3   | 8,065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월별 소 전국도매가격

(단위 : 두, 원/kg)

| 월  | 구분 | 한우     |        | 한우(암)  |        | 한우(수) |        | 한우(거세) |        |
|----|----|--------|--------|--------|--------|-------|--------|--------|--------|
|    |    | 경락두수   | 평균가격   | 경락두수   | 평균가격   | 경락두수  | 평균가격   | 경락두수   | 평균가격   |
| 1월 |    | 33,733 | 13,242 | 12,672 | 11,711 | 1,521 | 9,767  | 19,540 | 14,231 |
| 2월 |    | 23,147 | 13,698 | 9,040  | 12,458 | 870   | 10,079 | 13,237 | 14,564 |
| 3월 |    | 26,694 | 13,762 | 11,218 | 12,216 | 1,331 | 9,964  | 14,145 | 15,024 |
| 4월 |    | 25,429 | 13,633 | 12,039 | 11,768 | 1,224 | 9,950  | 12,166 | 15,363 |
| 5월 |    | 27,731 | 13,308 | 13,920 | 11,481 | 1,326 | 9,395  | 12,485 | 15,232 |
| 6월 |    | 28,841 | 13,007 | 15,646 | 11,218 | 1,275 | 8,999  | 11,920 | 15,149 |
| 7월 |    | 30,412 | 12,340 | 16,881 | 10,436 | 1,024 | 8,667  | 12,507 | 14,530 |

※자료: 농협중앙회





## 직불제, 축발기금 확대로 축산업 기반조성하겠다.



▲김영록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협당 간사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한우농가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농해수위 민주당협당 간사로서 임하는 각오는?

제19대 농해수위는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입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급한 것은 농어업 지원예산의 확충이다. 지난해 한·미 FTA여야정협의회는 향후 10년간 25조 1천억원에 달하는 FTA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매년 2조 5천억원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한·EU, 한·미 FTA로 인해 매년 1조원씩 농어업이 피해를 보는데 농어업예산은 국가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13년 예산은 17조 3천억원으로 올해예산 18조 1천억보다 4.8%나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줄이는 것은 정부가 농어업을 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면세유확대, 농업용전기 확대 등 13개 대책을 약속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3개 대책은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워진 농어업을 영위해 나가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반드시 13대책 모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 전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지난 4월 제19대 총선당시 구제역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3당 공히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현재 본의원이 법안을 제출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장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쌀직불금과 같이 축산직불금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EU의 축산농가는 소 1두당 하루에 2유로씩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현재 수입축산물 관세 전제가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축산물 관세액은 연간 약 1조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분 지원율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여 축산농가가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절반을 축발기금으로 전입하고, 마사회 전입금,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축산업의 기반조성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노골적 '축산업 죽이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격앙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허가 축사 양성과 특별조치법 시행,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 폐쇄·사용중지 명령 철폐, 과징금 부과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철폐해야 한다. 축산업 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 허가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지난 제308회 임시국회에서 서규용장관은 과도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축산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농어업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는 더 이상 정부가 마음대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1%의 재벌·대기업보다 99% 서민·농어업인을 위한 정부정책이 되도록, 농어업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전환하도록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업인과 함께 노력하겠다.

##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 한우자조금, 김선아 한우 홍보대사 위촉식

한우자조금은 23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5대 한우 홍보대사로 배우 김선아를 위촉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강성기 위원장은 김선아에게 위촉패와 한우세트를 전달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과 어려운 한우 농가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배우 김선아는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데 대해 “요즘 한우 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홍보대사로서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한우가 원래 맛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12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맛이 있고, 영양면에서도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우 홍보대사가 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우가 한국우승을 응원합니다!



한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런던올림픽 현장에 7인의 한우 서포터즈가 도착했다. 8월 1일(수)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예선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가봉의 경기가 열리는 영국 런던 웹블리 경기장에서 한우자조금이 준비한 한우서포터즈가 대표팀의 우승과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난타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이번 올림픽 이벤트는 굿모닝 대한민국, 런던와이드 등 공중파를 포함해 총 17개 매체 50여건이 노출됐으며 7억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뒀다.

##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



지난해부터 한우자조금은 매주 금요일을 ‘한우 먹는 날’로 선포하고 소비자들의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한우 골든벨을 울려라’ 이벤트를 지난 8월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매주 금요일 직장인 밀집지역 음식점을 한

우 캐릭터가 방문, 골든벨 게임을 진행, 회식비 5만원 지원과 육포를 나눠주는 게릴라성 행사로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향후 전국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거리 홍보에 나서는 한우 캐릭터를 촬영한 후 한우 페이스북에 올리면 매일 10명을 추첨해 한우버거를 나눠주는 경품행사도 같이 진행한다.

강성기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매주 금요일은 전국민이 한우를 먹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한우 소비촉진 붐을 조성기 위해 SNS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 펼칠 계획이다.



## 한우 적정 사육두수 설정, 농가소득과 소비 적정선 유지해야

학계 “현재수준 과다” 암소·송아지 생산 등 다각적 관리 필요  
한우자조금,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 심포지엄 개최

한우산업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우 적정사육두수는 과연 몇 두인가? 현재 한우산업은 한우가격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원인을 수급불균형으로 꼽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16, 17일 양일간 대전에서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사육 두수 증가는 장기 변동성 때문이다

송우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한우 사육 두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장기 변동성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한우산업의 장기 변동성 때문에 생산자는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가격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육기반이 불안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복되는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적정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도록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지금은 초과, 2~3년내에 적정두수 도달

조영득 GS&J인스티튜트 연구원은 “국민총소득(GNI) 변화에 따른 연 평균 한우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은 2011년 가격 수준이 유지될 때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고, 한우산업 입장에서 사육두수가 완만히 증가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적정 사육두수를 분석해 보면 276만2천마리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한우사육두수는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GNI(국민총소득), 한우가격목표 설정, 수요량 예측 등을 통해 지난해 필요한우사육마릿수는 268만마리, 2015년 300만마리, 2020년 344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현재 인공수정률이 낮아 농가의 번식의향이 냉각상태에 있으며, 암소도축량은 증가, 송아지 생산두수와 암소사육두수가 감소세이므로 현재 한우산업은 적정사육두수에 접근하고 있는 연착륙 단계라고 밝혔다.



### 암소도태, 송아지 생산에 대한 정책 강화해야

전상곤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정책의 초점을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아닌 농가소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육두수 관리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사육두수를 위해 사육두수 쿼터제를 도입할 경우 각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경제주체의 합



의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여 선진국의 정책유형에 맞춰 농가단위 소득 보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우산업에 대해 “전체인구 2억2천만명인 일본은 화우 사육두수를 180만마리 수준임을 비교할 때, 인구 5천만명의 우리나라는 한우를 300만두 이상 사육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암소도태와 송아지생산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교수는 “국내 축산정책방향이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가격보험과 같이 정부, 지자체,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격하락 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 농가의 소득안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우사육두수 관리 매뉴얼 정립 필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육두수 측면과 농가수

취가격 측면으로 나눠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육두수에 대응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갑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차장은 한육우 경기순환주기에 맞춰 한우의 가격이 필요이상 상승할 시 도매시장 출하를 확대하고 군납물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우가격의 하락시기에는 출하시기 조절과 군납물량 증대, 안정제 보전금 지급액 증액 등을 통해 한우가격을 안정상한가격과 안정하한가격내에 유지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산업의 주기상 단계를 가격 상향 회복기, 안정상한가격 접근기 등 7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산업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차장은 “한우산업은 5~12년을 주기로 불황과 회복, 호황, 침체를 반복한다”며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한우산업의 진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농가의 수익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한우 240여두를 사육하는 충남 보령의 이정학 서해농장 대표는 이미 축사시설을 담보로 제공돼 있는 상황으로 마땅한 부동산이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 대표는 지난 8일 NH농협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았고, 한우 마리당 평가 감정금액의 40% 수준인 2백만원씩 2억원 가량을 대출받게 됐다.

앞으로 법인이나 상호 등기를 한 농업인인 냉동 보관 중이거나 사육 중인 한우와 쌀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농협, 수협, 광주은행이 농수축산물,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4종의 상품을 출시한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동산담보대출의 부실 수준을 예측하기 곤란한 관계로 담보는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며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우

선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은 한우와 쌀로 제한된다. 냉장 및 냉동 보관 중인 축산물과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에 보관하는 쌀도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는 별도로, 따라서 은행 대출한도가 꼭 차 자금난에 시달리는 농업인이나 중소기업들도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동산 담보인정비율은 감정평가금액의 40%이며 대출한도는 감정액의 80%이다. 농축산물 감정가격은 담보물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고시하는 가격이나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는 평균 0.8%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담보관리비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금리인하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출대상은 경력이 3년 이상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 높은 기업으로 제한된다. 개인은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법인이나 상호 등기를 한 자영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

## TMR 및 TMF 사료배합프로그램 개발

###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직접 주위의 농산부산물물을 이용해 사료배합을 할 수 있도록 TMR 및 TMF 사료배합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농산부산물, 곡류, 조사료 등 농가에서 구입 가능한 원료사료를 사용하여 선형계획법(LP)을 사용하여 최소비용의 배합비를 구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쉽고, 간편하게 배합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사료배합 프로그램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우홍보관 → 공개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02-522-3607) ■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

## 무더운 여름, 저렴한 한우로 건강 챙기세요

### 한우자조금, 대형 유통업체와 공동 할인행사 진행



한우사육두수 증가 및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한우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한우자조금은 소값 회복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한우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이마트에서는 ‘대한민국이 한우암소 먹는 날’ 캠페인을 펼쳐 한우암소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이마트는 국내 단일 행사 최대 물량 수준인 한우 암소 1,400마리를 준비해 한우 등심, 국거리, 불고기 등 대부분의 한우암소 전 품목을 지정된 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0% 할인해 판매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우암소 등심 1등급 기존 5,900원에서 4,130원으로, 2등급 4,800원을

3,360원, 한우불고기를 3,400원을 2,380원에 판매하며, 한우부산물도 30% 할인판매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이마트 본점인 은평점에서 한우시식회 및 포토타임을 가지며, 한우소비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마트 민영선 팀장은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불경기로 인한 한우소비감소로 지난해와 같은 한우 가격 하락조짐이 있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한우암소 판촉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협계통조직 매장을 통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간 대대적인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했으나 판매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협은 당초 1만 여두 판매를 목표로 추진 했으나 계획의 50%를 겨우 넘긴 5,200여두를 판매하였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현재 출하되고 있는 암소의 경우 등급이 낮아 당초 1,000여개의 매장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절반도 미치지 않는 486개소만이 참여했음을 들 수 있다.

농협 축산유통부 관계자는 “암소고기에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양념육 소스 등의 증정행사와 할인판매를 병행하고 있지만 계통매장에서 암소 취급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많다”고 말했다.



# 무더운 여름, 한우와 함께 건강하게! 전국 땀땀곡곡 한우자조금 사업 활발

## 시·군지역 시식회 및 할인판매



7. 20~23 옥천 포도축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는 지난 14일 홍천축협 생축장 일원에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원 240여명과 한우농가 30여명, 축협 및 관계자 30여명 등 총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주부교실 중앙회 회원들은 생축장 견학 후 한우 프라자로 이동해 한우고기를 구입하고, 한우불고기를 시식했다.



7.27~29 제주 삼양 검은모래축제



8. 3~5 홍천 철목수수축제



8.10~14 예천참우축제



8.11~12 조치원복숭아축제

## 정책 설명회



7. 4 정책설명회(경남 남해)



7. 20 정책설명회(전북 정읍)



7. 21 정책설명회(전남 나주)



##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 9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나 6월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6월 한우 사육두수는 3월보다 증가하고, 전년 동월보다도 2.7% 증가한 298만 두였다. 9월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 304만 두보다 다소 증가한 305~308만 마리, 그 중 한우 사육두수는 290~295만 두 수준으로 전망된다.(통계청 발표치 기준).

### 1~7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22.9% 증가, 9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 수입 감소 전망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로 소비가 증가하여 1~7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22.9% 증가한 45만 1천 두였다. 이중 암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50.6% 증가한 21만 9천 두, 거세우는 전년과 비슷한 19만 4천 두로 암소 도축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 쇠고기 소비 감소로 1~7월 수입량은 전년보다 17.8% 감소한 14만 5천 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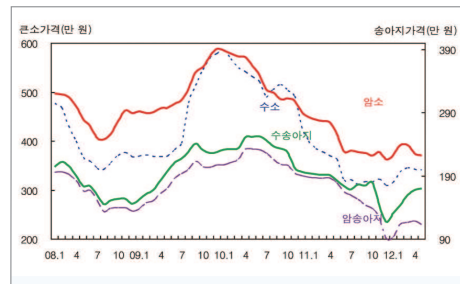
사육두수와 추석 수요 증가로 9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7만 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가 여전히 많아 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2만 3천 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수요로 9월 도매가격 일시적 강세, 암소 출하 증가로 10월 이후 가격 약세 불가피

우시장 거래가 예전보다 활기를 잃으면서 소 산지가격은 8월에는 7월보다 하락하고 있다. 8월 14일 현재 암송아지 가격(6~7개월령 기준)은 105만 원, 수송아지 가격은 162만 원에서 형성되었다. 국제곡물 가격 급등으로 번식의향이 낮아 암송아지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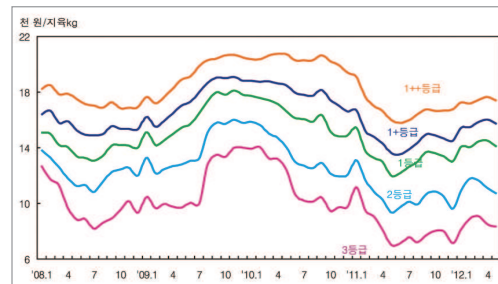
8월(1~15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3,051원(지육kg)은 전년 12,980원보다 0.5% 높지만, 평년 14,432원보다는 9.6% 낮은 수준이다. 추석 수요 증가로 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8월보다 상승한 14,000~15,000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15,244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추석 이후 암소 감축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될 경우 10~12월 한우 가격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 산지가격(우시장) 동향



자료 : 농협중앙회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우소식 이모저모

### 한우경진대회 예선 내달 14일 경북부터 시작

10월 30일 농협 안성팜랜드서 전국 최우수축 가려

16년 만에 부활하는 전국한우경진대회를 앞두고 도 단위 예선전 일정이 확정됐다.

도별 예선전은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경북한우경진대회는 오는 9월 14일 구미칠곡축협 선산가축시장에서 열린다. 경북대회 출품두수는 시군별로 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 3두씩 총 66두이다. 이 중 부문별 3두씩 총 9두를 선발하고 우수시군 2곳도 시상한다. 경북농협은 경진대회와 함께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 축산종합전시관을 운영해 55부스에서 동물약품과 축산자재 전시도 진행한다.

#### 한우경진대회 예선 일정 안내

| 행사일정        | 도  | 행사지역                       |
|-------------|----|----------------------------|
| 9월 14일      | 경북 | 구미칠곡축협 선산가축시장              |
| 9월 18일      | 충북 | 충주축협 가축시장                  |
| 9월 18일      | 전남 | 나주축협 가축시장(영산포)             |
| (예정) 9월 20일 | 전북 | 임실군 사선대                    |
| 9월 21~22일   | 강원 | 평창군 야구장 부지                 |
| 10월 10일     | 충남 |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석문간척지 조사료단지 인근 |
| 10월 12~13일  | 경기 | 고양 일산호수공원                  |
| (예정) 10월초   | 경남 | 함안축협 가축시장                  |

### 한우농가 해외연수 신청자 공모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 농업 견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한우자조금은 해외연수 신청자를 공모한다. 이번 해외 연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이며, 1차(30명) 10월 8~14일(5박 7일), 2차(30명) 10월 15~21일(5박 7일) 동안 진행된다.

한우자조금은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0만원이다. 연수기간동안 미국 축산물의 30%를 생산하는 미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비육우 농장에서 육우제품 소비지에 이르는 전 단계를 견학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연수신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여권사본을 동봉해 9월 7일까지 한우자조금 사무국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참고)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02-01108

비매품 제8권 제32호 통권 제82호 발행일 2012년 8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이화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 애독자 코너

‘국민과 함께하는 오천년 숨결의 민족한우’를 주제로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과 제11회 한우인의 날이 충북 충주시 탄금대 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려운 한우산업을 타개하고자 한우인들의 강한 의지와 결집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우산업 종사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의 장인 기자재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하는 한우협회 창립기념식 행사일은 언제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8월호 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엽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엽서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 당첨자

7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관범(충남 부여군), 박연순(경북 의성군), 전기영(전북 군산시), 송은재(전남 고흥군), 우원해(경북 안동시), 안소영(충남 청양군)

## 한우 음식점 소개

삼오정

전화 : 051-806-9540  
주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15

1층에서 4층까지 한우 전문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오정은 45년 전통을 2대째 잇고 있는 한우명가다. 1층은 직장인



과 연인들을 배려하였고, 2층은 보양식 전문식당, 3층은 가족 단위의 모임과 피로연, 회식 등 대소 연회석을 갖추고 있으며, 4층에는 고객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러 공판장을 뛰어 다니며 마련한 1+등급의 한우 등심과 생갈비가 이곳의 대표메뉴다. 또한 산대로부터 전수받은 백김치를 곁들이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진미를 맛볼 수 있다.



# 한우 가격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암소감축이 필요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형질 선별 등 개량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량한 한우 사육마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능력우 도태를 통한 감축이 필요합니다.



약정 맺은 암소는 분산 출하하고, 가급적 추석 전에 출하물량을 늘려 한우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계약한 암소 중 10월 이후 출하예정 마리수 : 5만여 마리(전체의 62% 수준)



한우가격 회복을 위해 공급감소와 소비확대가 필요합니다.

• 한우고기 소비촉진만으로는 현재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 소비 평균 증가율('02~'11) : 4.4%

– 한·육우 사육마리수 평균 증가율('02~'11) : 8.5%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